

01 교회소식

세계 만민을 향한 사역

예루살렘에서 열린 '2018 세계 기독교미디어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GCN방송 소식과 엔라쎬 콜롬비아 방송 사울 링곤 부사장 인터뷰.

02 생명의 말씀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영의 일을 더 생각하게 되고, 결국 영원한 생명과 평안에 이를 수 있다.

03 기획특집

“마음껏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어요!”

파열된 발목인대를 권능으로 신속히 치료받은 이지영 전도사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영혼들에게 더욱 충만히 전하고 있다.

04 간증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심각한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은 김은혜 자매와 우울증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대만 마징판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861호 2018년 10월 28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2018 세계 기독교미디어 정상회의’ 참석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만민의 사역을 전한 GCN방송



지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2018 세계 기독교미디어 정상회의'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개최되었다. 35개국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CN방송 국장 김진홍 장로가 초청받아 만민의 사역을 전했다.

10월 14일(일) 저녁, 환영 리셉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개신교계 특히 방송미디어 대표들에게 깊은 감사

를 표명했고 현장에는 AP, 로이터 등 세계적 언론들이 대거 참가해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사진 1, 2).

15일(월), 김 국장은 만찬에 참석하여 닐 바르켓 예루살렘 시장 및 세계 미디어 대표들과 교제를 나누었으며, 16일(화)에는 이스라엘 루벤 리블린 대통령 관저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 및 오찬에 참석했다(사진 3). 이날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울리 요엘 에텔스타인 국회의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후 주요 인사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힐릭 바 국회부의장은 당 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받은 은혜와 만민의 사역에 대해 소개했다.

17일(수) 폐회식에서 니잔 첸 홍보실장은 "이스라엘에서 필요한 GCN방송 사역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참석에 대해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밖에 2020년 6월

초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 개신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생중계 되는 성령강림절 행사인 '임파워 21'의 오시 밀즈 사무총장은 우리 교회 공연팀을 행사에 초청했다.

한편, '2009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이스라엘에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이루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 개신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크게 부흥하고 있다.

Interview

“콜롬비아 국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엔라쎬 콜롬비아 방송에서는 이재록 박사님의 설교 말씀을 한 주에 3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국민에게 많은 영향과 감흥을 주고 있지요. 전국의 다양한 도시에서 간증과 함께 설교에 은혜받고 있다는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 박사님의 설교 말씀은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유익한 가르침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이 침투하여 믿음을 굳건케 합니다.

개인적인 영적 성장은 물론 콜롬비아 국가에도 매우 영향력 있는 말씀이지요. 엔라쎬 콜롬비아를 통해 이 박사님과 만민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이재록 박사님의 신앙서적들은 매우 감명 깊고 인상적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는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며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책자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여 온전한 단계에 이르러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의 처소인 새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행복을 생생하게 묘사한 『천국』(상·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좋은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지요. 이 박사님의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도 매우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지옥』 책자는 사후에 이런 영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깨닫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방영함으로써 어떻게든 콜롬비아 국민이 이러한 화를 면할 수 있게 해 주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깨어라 이스라엘』 책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깨어나야 할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건설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재록 박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모든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확신컨대, 콜롬비아와 중남미에 이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확대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 링곤 부사장 (엔라쎬 콜롬비아 방송)

‘하나님은 빛이시라’ 시리즈 2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 로마서 8:5~6 -

“

육신의 일이란 아직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행함으로 유발될 수 있는 비진리의 속성들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영의 일이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께서서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이십니다(요일 1:5). 우리가 어두움을 버리고 빛으로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원수 된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롬 8:7).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1.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말씀합니다. 그러면 육신과 육신의 일, 영과 영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육신’이란, 악한 원수 마귀를 통해 들어온 죄성과 우리의 몸이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 그 후손인 모든 사람이 유전적으로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이를 원죄라고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원수 마귀를 통해 짓는 죄는 자범죄라고 하지요. 이러한 죄로 인해 진리가 빠져 나간 사람의 몸에 악한 원수 마귀를 통해 들어온 죄성이 결합된 것을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

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 7:18~25) 고백한 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않고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결국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육신의 일’이란 아직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행함으로 유발될 수 있는 비진리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분해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곧 미움, 거짓, 음욕, 교만 등 마음속에 잠재돼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에 속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죄의 속성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아직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죄로 여기십니다. 만일 속으로는 미움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꾸민다면 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는 물론 외식하는 죄까지 더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요.

육신의 일들이 구체적인 행함으로 드러난 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 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총칭해서 영적으로 ‘육체’라고 하지요.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육’이란 ‘썩어지고 없어지며 변질되고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즉 육체와 육신, 우리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을 다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이 있다면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므로 어두움의 권세자인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을 벗어 버리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에 사업터, 일터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으로 고통 받으며, 시험 환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깨끗한 것, 온전한 것, 참이고 진리이며 생명 자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마음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으로 영을 낳아(요 3:6)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히게 됩니다(갈 5:22-23).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영으로 일구어졌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치가 됩니다.

다음으로 ‘영의 일’이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기도와 전도, 구제, 선행, 봉사 등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영의 일이지요. 그래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4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독서 우송료만은 정기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영의 일을 더 생각하게 되고 결국 영원한 생명과 평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좇는지, 영을 좇는지 알려면 그 행함을 보면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 이유 없이 오른뺨을 때렸을 때 영을 좇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왼뺨도 돌려드립니다. 자신을 꺾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슬퍼하거나 낙심치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요.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원수까지라도 사랑한다면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음은 물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엡 5:9).

2.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차이

1)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분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딤후 2:4). 그러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범사에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려면 항상 영을 좇아 말씀대로 행해야 하지요.

그런데 육신을 좇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두움과 짝하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 시험 환란에 빠지거나 각종 어려움을 만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반면, 영을 좇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요.

2)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을 병균에 감염되었거나 몸에 무리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방법도 병원이나 약을 의존하게 됩니다. 반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세상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지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 나 여호와와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했습니다. 즉 질병은 죄로 인해 오므로 질병에 걸렸다면 스스로 돌아보아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질병의 원인에는 죄로 인한 것 외에도 과식이나 무절제한 몸의 사용, 신경성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도 있고, 또 원수 마귀가 질병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찾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모두 헐어야 하지요.

성경 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질병을 치료받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히스기야 왕을 들 수 있습니다(왕하 20:1~7). 히스기야 왕은 중한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낙심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삼 일 만에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지요. 반면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아사 왕은 범죄함

으로 인해 발에 심한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 의원에게 의존해 결국 죽고 맙니다. 이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는 말씀을 확실히 입증해 주는 사례입니다.

3) 사업 등 어떠한 일을 경영하고 계획할 때

대부분의 경영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남의 돈을 빌려 투자했다가 결국 부도가 나고,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노력만큼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있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므로 허사로 돌아가는 일이 허다하지요.

이와 대조적으로 영을 좇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 나갑니다(고전 10:31). 또 당장의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맞는 일인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일인지를 잘 살펴서 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무슨 결정을 내릴 때는 자기 생각과 이론을 동원하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잠 16:3). 앞일을 예지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아 나가면 매사에 실수가 없고 행통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불같이 기도하여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빛 가운데 거할 때 성령의 밝은 음성과 인도를 받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일은 영에 속한 일이므로 무엇보다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겠습니다.

3.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방법

로마서 8장 7~8절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이 있는 만큼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빛으로 스스로를 조명해 볼 수 없고, 결국

빛으로 들어가고자 도전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을까요?

첫째, 불같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고 성령으로 영을 낳으며 영의 생각을 좇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즉시 돌이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기 위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을 내보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셋째, 회개의 역사를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통회자복함으로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헐어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며 성령의 불로 죄성을 태움 받아 영의 일을 좇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분명히 구분하여 아직 남아 있는 육신의 일을 버리고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며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들어와도 나라도 복을 받고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며, 머리 되는 축복을 받으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어두움에서 나와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늘 행통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열된 좌측 발목 인대가 4일 만에 정상이 되었어요”

이지영 전도사 (3대대 27교구장)

2018년 8월 2일(목), 여러 가정 심방을 다니며 온종일 무릎을 꿇는 일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마지막 가정에서 심방을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오래 무릎을 꿇어 감각이 무뎠지니 일어서다가 발목이 꺾여서 다리가 어긋났던 것입니다.

발목이 금세 붓고 걷기도 어려웠지만 통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은 뒤에도 증세가 여전하자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무언가 깨우쳐 주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3일, 초음파 사진을 찍어 보니 좌측 발목 인대 4개 중 2개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전치 4주 정도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며 김스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발목을 테이프로 간단히 지지한 후, 믿음으로 사명

감당을 계속하였습니다.

8월 6일(월) 만민하게수련회 첫날, 강사 이수진 목사님의 교육 말씀을 통해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으며 부족했던 제 모습을 깨우쳐 회개하였습니다.

이어 환자기도가 시작되자 성도님들이 응답기를 간절히 바라며 환자들을 돌아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그리고 걸어 나가는데 제 발목에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걸어 보아도, 뛰어 보아도 전혀 이상이 없었지요. 할렐루야!

초음파 사진




▲ 기도받기 전: 발목 인대가 파열됨으로 비어 있어 검게 보임. ▲ 기도받은 후: 발목 인대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채워져 있음.

“아토피성 피부염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김은혜 자매 (23세, 2청년선교회)

올해 4월 초부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70% 정도에 아토피성 피부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해져 휴학까지 하게 되었지요.

팔다리를 펴거나 접을 수도 없었고, 얼굴 피부는 중력으로 인해 높기만 해도 귀까지 짝 갈라졌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표정을 지을 수도 없었지요. 상처에서 진물이 나니까 계속 아물지 않았고, 조금만 움직여도 갈라지고 살을 갈로 베는 것처럼 통증이 심했습니다.

너무 심할 때는 그 통증을 참기 위해 숨이 찰 정도였고, 살을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아파서 매일 울며 지냈지요. 잘 걷지도 못하고 앉기도 힘든 상태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장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가득 느끼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날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느껴지면서 저는 결국 회개자복을 하였고, 어느덧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이복님 원장님이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할 것을 깨우쳐 주셔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마스크도 벗고 다니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였지요. 그러자 피부가 확연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어진 살이 붙고 진물이 멈추더니 바로 딱지가 입히고 새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딱지가 벗겨지자 아무리 만지고 긁어도 피가 나지 않았지요. 너무나 기뻐합니다.

4월 말경, 하나님께 치료받기로 마음을 먹고 만민기도원에서 매일 열리는 은사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 마스크를 쓰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져 세상을 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잊을 정도로 기도를 쉬고 있던 상황이었

지요.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았기에, 억지로 회개하려 하니 마음이 답답하기만 했고 상태는 좋아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은사집회에 참석해 계속 설교를 들으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받으니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희진 목사님도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시며 당

그러던 중 만민하게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 다해 준비했고, 8월 6일(월) 수련회 첫날 강사 이수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전체 기도를 받은 뒤에는 조금 남아 있던 상처까지 깨끗이 치료되었지요. 할렐루야!

이제 저는 2학기에 복학하여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런 아토피성 피부염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제 삶을 감사로 채워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울증을 치료받고, 장수말벌의 위험에서 지킴 받았어요”

마징란 집사 (71세, 대만 타이중만민교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열심히 봉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변화는 이루지 못했기에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으며 심지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만민교회에 등록한 후, 저희 가정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가기도를 받으면서 우울증이 점차 사라져 깨끗이 치료되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화목해졌지요.

남편도 원래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어서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맑아지는 체험을 하여

만민의 양 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GCN방송을 통해 다니엘철야에 참석하여 기도하며 충만히 신앙생활을 하던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8년 여름, 또 한번의 큰 체험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 뒤쪽, 학교 주변에는 황무지가 있었는데 10년 동안 방치되어 보기 흉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3~4개월 동안 풀을 제거하고 나무를 세우며, 울퉁불퉁한 길을 평평하게 만들기 시작했지요. 늘 하나님께 지켜 달라고 기도

한 뒤 작업을 했는데, 어느 날 말벌 한두 마리가 보이더니 점점 많아져 나중에는 벌집까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니 관계자들이 와서 보고는 이 벌은 대만에서 독성이 제일 강하고 센 장수말벌이라고 했습니다. 말벌의 경계 범위는 50~100m인데,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1m 가까이에서 일을 했음에도 벌에 쏘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후에 이웃 주민 3명이 그곳에 갔다가 벌에 쏘여 심한 통증으로 며칠 동안 고생하고, 결국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웃들은 벌집을 발견한 제게 감사해하였으며 벌집은 소방대가 와



서 제거해 주었지요. 저는 다시 한번 목자의 공간에서 지킴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지난 10월 초, 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아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때 귀한 목자를 만나 주님 안에서 늘 보호받으며, 천성을 향해 뜨겁게 달려가게 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광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7 ☎055)322-7055, 010-6605-2254
- 남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충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리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9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3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광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roman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roman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휴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roman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김천자성전 인천시 서구 완창로 162 ☎010-3232-7504
- 구리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자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8331-1136
- 안산자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자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99, 010-8927-2073
- 일산자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D ☎031)905-2419, 010-2352-8336